

# 요금 인상·계정 단속...OTT 소비자 부담 더 커졌다

### 티빙·디즈니플러스는 요금 인상,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단속 유료화 구독료 저렴한 국가 우회 이용권 구매 필수...불법 사이트도 다시 활개

지난 주말, 여느때와 같이 티비를 켜고 넷플릭스에 접속하자 검은 화면에 안내 문구가 떴다.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님 및 회원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TV를 회원님의 넷플릭스 이용 가구에 포함된 디바이스로 확정해 볼까요?' 아뵐싸. 친구들과 함께 '4인팻'을 꾸려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디즈니플러스와 티빙이 요금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넷플릭스까지 계정 공유를 유료로 전환하고 나서면서 구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넷플릭스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계정의 공유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상 같은 거주지인 경우만 계정 공유가 가능했는데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들이 단속되고 나섰다.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전에는 친구 3명과 월4250원씩을 내고 프리미엄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정책에 따르면 친구 2명에 대한 추가 비용 1만 원을 낸 뒤 각각 월 9000원씩 내야 한다. 그동안 계정을 공유해왔던 구독자들은 구독료를 배 이상 내야하는 셈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1일 요금제 개편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했다. 기존 단일 요금제(월 9900원)를 스탠다드(월 9900원)와 프리미엄(월 1만3900원)으로 세분화했다. 원래대로 4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고품질 콘텐츠를 즐기려면 40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티빙도 오는 12월부터 약 20%대의 요금 인상을 공지한 바 있다.

OTT 업계가 하나둘 요금을 인상하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꼼수(?)도 늘어가고 있다. VPN을 통해 인도·터키 등 구독료가 저렴한 국가의 IP로 우회해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해외 계정을 도파는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이용 요금이 저렴한 국가의 계정을 가입하게 한 뒤 기프트 카드를 결제하게 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단 VPN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계정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계정 중단 등 단속이 돼도 보호받을 수 없다. 해외계정 구매 역시 자사 서비스를 활용한 영리적 활동 금지 약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 이른바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랩'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A' 서비스는 지난달 트래픽이 9월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서비스들은 해외 서버에 기반해 주소를 계속 바꾸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놓은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반도체의 역사와 미래 '과학스쿨'

### 국립광주과학관·지스트, 오늘 과학관 상상홀

반도체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이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하 과학관)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은 15일 오후 7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11월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강동호(사진)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조교수가 '반도체가 알려주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반도체의 정의와 역사,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 갖는다.

강 조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싱가포르南洋공과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조교수 및 반도체공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차세대 반도체의 소자와 공정 기술, 시스템 개발



및 차세대 광응용 소자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과학관과 지스트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저녁 '과학스쿨'을 열고 있다. 과학스쿨은 온라인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성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강연 영상은 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과학스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 또는 과학스쿨 홈페이지(science.school.gist.ac.kr)에서 확인.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진짜보다 진짜같다" AI 생성 얼굴 '초현실주의' 경보

### 호주연구팀 "오류정보·신원도용 우려"

사람들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백인 얼굴을 실제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고 판단하며, 특히 AI 사진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AI 초현실주의가 인종 편견을 강화하고 잘못된 정보 확산과 신원 도용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호주국립대(ANU) 에이미 다웰 교수팀은 14일 과학저널 '심리 과학'(Psychological Science)에서 AI 생성 얼굴 50장과 실제 얼굴 사진 50장을 이용한 실험에서 AI 백인 사진을 실제 사람 사진보다 더 진짜 같다고 판단한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색 인종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류를 많이 범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 사람들이 자신이 AI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각각 124명과 610명이 참여하는 두 가지 실험을 했다.

첫 실험에서는 AI 생성 얼굴 사진 50장과 실제 사람 사진 50장을 무작위로 제시한 뒤 AI 사진인지 사람 사진인지 판단하게 하고 그 이유를 묻은 다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수치(0-100)로 답하게 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AI 사진과 사람 사진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AI 사진과 사람 사진을 제시하면서 얼굴을 인식할 때 고려하는 차별성, 친숙함, 매력, 얼굴 비율 등 14가지 특성을 평가하게 했다.

첫 실험에서는 AI 생성 얼굴 가운데 백인을 진짜 사



람 얼굴로 오인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AI 백인 얼굴을 실제 사람으로 판단한 비율은 65.9%에 달했지만, 실제 사람 얼굴을 진짜 사람으로 판단한 비율은 51.1%에 그쳤다.

그러나 유색 인종 얼굴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웰 박사는 "이런 불일치는 AI 알고리즘이 불균형적으로 백인 얼굴로 학습하기 때문"이라며 "백인 AI 얼굴이 지속해서 더 사실적인 것으로 인식될 경우 인종적 편견을 강화해 유색 인종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험에서는 또 AI 사진을 진짜 사람으로 판단하

는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대해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AI 얼굴에 속는 이유가 제시됐다. 분석 결과 얼굴 비율, 친숙함, 기억 용이성 같은 얼굴의 지각적 특성이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초현실주의 사진에 속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속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잘못된 정보 확산과 신원 도용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2023 인공지능 아카데미' 성료

### 국립광주과학관, AI 이해도 높이고 과학적 사고 능력 증진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하 과학관)은 지난 11-12일 광주지역 초·중생 120명을 대상으로 '2023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광주시가 주최하고 과학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적 사고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인공지능 아카데미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환경 분야 적용 사례를 이해하는 체험교육과 인공지능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심화교육, 과학강사의 해설과 함께 인공지능의 전시물을 체험해보는 전시물 해설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됐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태호관장직무대리는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올해 인공지능관을 개관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